

# 삼성전자, 온실가스 38% 감축

## 상반기 억원당 4.58톤 배출 ... 에너지효율화에 전기사용 감축

삼성전자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38%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삼성전자는 7월24일 녹색경영 선포 2주년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제품 개발 등 2년간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.

삼성전자는 2011년 상반기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생산액 억원당 4.58톤CO<sub>2</sub>로 2008년 대비 38% 감축했다고 발표했다.



특히, 직접 배출관리 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기업과 물류, 임직원 출장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도 산출해 감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.

생산제품 부문의 평균 에너지 효율은 2008년 대비 18.5% 향상됐고,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판매한 생산제품의 전기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두 2239만톤 줄었다.

미국의 260만 가구에서 1년 동안 전기 사용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와 같은 양이다.

삼성전자는 또 2010년 총 2210개 모델의 글로벌 환경마크를 취득해 세계 전자기업 가운데 5년 연속 최다 인증마크 보유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.

삼성전자 자체 기준이자 글로벌 환경마크 수준의 친환경제품은 <Good Eco-프로덕트 개발률>은 2010년 목표인 90%를 초과 달성했다.

삼성전자는 2010년 친환경제품 개발과 녹색사업장 구축을 위해 총 1조600억원을 투자했고 2009년 이후에는 모두 2조700억원을 지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7/25>